

KIDS RUNNING LAB · 3 회 차

키즈러닝랩

엄마 영차!

변화하는 AI 세상에 불안해하지 않게,
엄마들과 함께 대화하는 AI 찾자리.

이번에 함께 볼 것

KBS 다큐 인사이트 「인재전쟁2」

1부 차이나 스피드 · 2부 코리아 딜레마

DATE

2026. 08. 19

수요일 오전 10:30

PLACE

카인드 오브 썸머

을지로3가 · 마른내로 40, 3층

CYCLE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다음 자리 · 9월 16일 (수)

이번 자리를 한 줄로

지난 두 번은 “AI가 무엇인가”를 봤어요. 이번엔 질문을 바꿉니다.

“우리 아이는 무엇을 잘하게 키워야 할까?”

이 질문에 **세 나라가 각각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파폴드, 37수, 특이점 — 지난 자리는 **기술의 이야기**였죠. 이번 다큐는 그다음을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해야 하는가.” AI가 다 한다면, 우리 아이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보고 올 영상 두 편

넷플릭스가 아니라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어요.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EPISODE 1

차이나 스피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의 첨단기술, 그 중심에는 결국 ‘인재’가 있다

KBS 다큐 인사이드 · 2026년 5월 14일 방송

youtu.be/0-nPEj6euio 47분

EPISODE 2

코리아 딜레마

아직도 ‘대학 입시’에만 쫓겨있는 대한민국, 반도체 공학 인재들이 설자리는 어디에?

KBS 다큐 인사이드 · 2026년 5월 21일 방송

youtu.be/-VrzRGXVZ6s 47분

보실 때 팁

- 두 편 합쳐 1시간 34분. 설거지하면서, 빨래 개면서 틀어놔도 괜찮아요.
- **못 보고 오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핵심 장면을 같이 짚어요.
- 한 편만 보신다면 → **2부(코리아 딜레마)**. 우리 이야기라 훨씬 와닿아요.
- 1부는 중국어 인터뷰가 많은데 자동 자막이 중국어로 그냥 나옵니다. **한국어 나레이션만 따라가셔도 흐름은 다 잡혀요.**

차이나 스피드

중국은 “먼저 만들고, 하면서 고친다.” 그 속도의 연료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학교에서 시작한다 03:00

- 항저우의 공립초등학교. 등교는 **AI 얼굴 인식 출석기**로 시작합니다.
- 작년부터 **초등학교 AI 교육을 의무화**했어요. “21세기에 태어난 세대 전체를 기술 친화적으로 키운다”는 목표.
- 글쓰기 원고지를 스캔하면 AI가 문맥·구성까지 순식간에 채점 → 교사는 그 시간을 아껴 **아이와 깊게 이야기하는 데** 씁니다.
- 로봇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걸 보여주며 묻습니다. **“아기가 춤 배울 때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 로봇은 왜 못 할 까?”** → 아이들 입에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는 **AI 원주민**이라고 부릅니다.”

— 학교 관계자

로봇이 사람을 이긴 마라톤 06:00

- 세계 유일의 **로봇 하프마라톤**(21km). 사람 22명 + 로봇 105대가 함께 달렸어요.
- **작년 완주 로봇 6대 → 올해 47대**. 1년 만에 인간의 세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 엔지니어들이 중간 지점에서 배터리 갈고 모터 식히는 장면 — 마라톤 급수대 같아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해요.** 키즈러닝랩이 매주 하는 그 달리기를, 로봇이 1년 만에 배웠습니다.

볼트라는 이름의 로봇 09:00

- 저장대 출신 95년생 공학자가 만든 **키 175cm · 75kg** 이족보행 로봇. 이름은 **볼트**.
- 질문의 출발점: **“로봇 모터가 사람 근육보다 센데, 왜 사람보다 못 뛰지?”**
- 100m를 16초에 주파해 기네스 기록 → 촬영 당일 **초속 11.4m**로 또 한 번 신기록 경신.

“다음에 오실 땐 12.4m/s일 겁니다. 진짜 볼트가 되는 거죠.”

— 로봇 개발자

왜 이렇게 빠른가 — 세 가지 이유 14:00

- **부품 생태계** — 설계만 하면 주변 공장이 다음 날 깎아서 갖다 줍니다. 시제품 사이클이 며칠.
- **정부가 시장을 만들어 준다** — 휴머노이드를 국가 과제로 지정. 기업 입장에선 **팔릴 곳이 확실**합니다.
- **데이터를 국가가 모은다** — 전국 9개 로봇 훈련소, 240대 로봇. 학습 데이터 **16,000시간**을 중앙정부가 수집.

차이나 스피드 — 계속

“테슬라 주행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모읍니다. 그런데 **중국 자동차 회사 데이터를 다 합치면 테슬라보다 많아요.** 데이터가 많으면 AI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는 거예요.”

중국에 등록된 로봇 관련 기업은 약 **100만 개**. 세계 로봇 출하량의 **87%**가 중국 기업입니다.

진짜 노리는 건 '표준' 22:00

- **「중국 표준 2035」** — 미래 산업의 표준 주도권을 잡겠다는 10년 전 국가 과제.
- 표준이 한번 정해지면, **그 분야 모두가 그걸 따라야 합니다.**

“중국의 개념 설계가 표준이 되고, 그 표준을 **한국 산업계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막에 지은 발전소 23:00

- 고비사막 **둔황 태양열 발전소**. 반사판 12,000개, 축구장 1,100개 넓이.
- 빛이 아니라 **열**을 저장해서, 해가 저도 24시간 발전이 가능합니다.
- 서쪽 사막에서 만든 전기를 동쪽 도시로 수천 km 보내는 **서전동송** 정책.
- **AI 산업의 진짜 전제는 전력**. 전력 생산량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하늘도 산업이다 27:00

- 상용화를 앞둔 **드론 택시**에 제작진이 직접 탑승. 프로펠러 16개, 목적지만 입력하면 조종사 없이 비행.
- 지상 1km 이하 하늘을 산업 공간으로 쓰는 **저공경제**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 미국 방산기업에서 일하던 연구자가 **규제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온 이야기.

“해외는 규제를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새 기술을 일단 해보게 하는 포용도**가 큼니다.”

나라를 공학자가 운영한다 31:00

- 중국 최고 지도부 상무위원 **대부분이 공학 전공**. → “사회를 또 하나의 수학 문제처럼 다룬다.”
- 반대로 미국 대통령 다수는 법률가 출신. → **“미국은 권리를 지키는 데 강하고, 중국은 짓는 데 강하다.”**
- **원사 제도** — 과학기술 최고 인재가 최고 지도자 앞에서 강연하고, 지도부는 그걸 듣고 공부합니다.

 다만 다큐는 그들도 짝습니다.

“목적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자체가 차단되어 있고, ‘유능함만 도구적으로 발휘해 준다면 공산당은 언제나 후원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이게 차이나 스피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키우나

1부의 마지막 3분의 1은 전부 **교육** 이야기입니다.

15살 야오스치 35:00

- 중학생 때부터 드론을 설계한 15살. 직접 만든 초소형 드론으로 **세계 최고속 기록**. 촬영 당일 **시속 358km**.
- 학교는 이 팀에게 **별도 연구실과 설비 전부**를 지원했어요.

“이 팀에 **5만 위안(약 1,000만 원)**을 줬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요. 5억을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요. **실패하면? 또 5만 위안 주는 거죠.**” 😊

— 학교 관계자

교실을 거꾸로 뒤집다 39:00

- 칭화대 **독실서원** — 이론 배우고 실습하는 순서를 **거꾸로**. 1학년 가을에 먼저 국가 연구현장으로 보냅니다.
- 산업현장의 미해결 문제를 먼저 겪고, 교실로 돌아와 답을 찾는 **역순 커리큘럼**.
- 베이징대 **튜링반** — 상위 1%만 들어가는 AI 집중 교육. 설계자는 미국 코넬대 존 흠크로프트 교수.

“과거엔 석유와 금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미래에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건 인재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만드는 나라가 선도국이 됩니다.”

— 존 흠크로프트 (코넬대)

5분에 70% 충전 43:00

- 배터리 회사로 시작해 지금은 테슬라와 판매 1·2위를 다투는 기업. 직원 90만 명 중 **엔지니어만 12만 명**.
- 3년차 엔지니어가 **5분에 70% 충전**되는 배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입 한 명을 키우는 데 최소 2~3년이 걸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꺼이 투자합니다. **결국 기업의 경쟁은 인재의 경쟁**이니까요.”

— 전기차 기업 임원

🧠 **1부를 덮으며**. 이 편에서 가장 무서운 건 로봇의 속도가 아니라, **“실패하면 또 5만 위안 주지 뭐?”**라고 말하는 어른의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준 어른이 지금 있나요?

코리아 딜레마

세상은 “뭘 할 줄 아느냐”를 묻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아직 “어느 학교냐”를 묻고 있다.

의사 체험관의 아침

01:00

- 누적 방문객 21만 명. **만 3세부터** 이용하는 의사 체험 시설. 체험이 끝나면 기념 **의사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 어느 시설보다 가격이 비싼데도 학부모 만족도가 높습니다.

“나중에 애가 커서 의사가 되면 진짜 좋죠.”

“오늘 저희 셋 왔는데, **셋 중에 한 명이라도 꼭 의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직을 해야만** 우리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 체험관에서 만난 엄마들



여기서 잠깐 멈춰요. 이 장면,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으셨나요? 오늘 첫 잔은 아마 이 이야기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04:00

- 올해 입시에서 의대 지원자는 30% 이상 줄고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는 늘었지만 —
- **최상위권은 의대에 중복 합격하면 거의 100% 빠져나갑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지금 이 산업의 열기가 **내가 졸업할 시점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거죠.”

아이 탓도 부모 탓도 아니에요. **불확실성 앞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걸 고른 겁니다.**

한국에도 도전자는 있다

05:00

- **AI 반도체 스타트업** — 국산 기술로 서버형 AI 반도체(NPU)를 개발했어요. 같은 성능에 소비전력이 크게 낮습니다. 창업 6년 만에 기업가치 3조 원, 목표는 “한국의 엔비디아”.
-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 2018년 창업, 첫 투자는 **2024년**. 6년을 못 받은 이유는 딱 하나, “**휴머노이드는 시장이 있어?**” 올해 초 엔비디아 젠슨 황이 이 회사 로봇을 소개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00명 중 99명이 조롱이었습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없어야 하죠?** 없을 이유가 없거든요.”

“**엔비디아도 20년 전엔 언더독이었어요.** 언더독이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업 후 가장 큰 고민 —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 AI 반도체 기업 대표

코리아 딜레마 — 계속

“버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행운은, 우리가 **학교를 베이스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이 스스로를 투신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 로봇 스타트업 대표

의사도 안전하지 않다

08:00

- 로봇 수술은 이미 상용화. 이제 **AI가 그 로봇을 보조**합니다. 4명 필요하던 수술을 2~3명이 합니다.
- 진단 영역은 이미 크게 바뀌었어요. AI가 짚어준 지점부터 보니 훨씬 빠르고 쉽게 찾습니다.

“저는 늘 동료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LLM 시대가 되면, **제 분야에서 저 정도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대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교육 과정 중 하나가 논문 읽고 발표시키는 건데 — 그거 **사람보다 LLM이 확실히 더 잘해요.**”

— 현직 의사

🧠 **오늘의 핵심 아이러니.** 우리가 아이에게 권하는 가장 안전한 직업을, 정작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로지 이야기

12:00

-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반려견 **로지**가 피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의사는 다리 절단밖에 없다고 했어요.
- 의학 지식이 없던 그는 **AI로 로지의 DNA를 분석**해 암의 원인을 찾았고, 대학 연구소가 힘을 보태 **로지 전용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 종양은 줄었고, 로지는 지금 건강합니다.

“예전 같으면 구글 쓰면서 **학부생 3명이 병렬로 5년**은 걸렸을 일입니다.”

🧠 **이 장면이 이번 편의 희망입니다.** 의사가 아니어도, **사랑하는 걸 살리려는 마음 + 도구 = 답**이 나왔어요.

학위가 아니라 실력

미국에서는 “어느 학교 나왔나”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16:00

- **팔란티어**(기업가치 500조 원)가 대졸이 아닌 **고졸 10대**를 뽑는 실력주의 펠로우십을 시작했어요. 월 800만 원, 4개월 인턴.
- 브라운대 합격을 포기하고 온 18살은 **입사 2일차에 상대 회사 CFO와 회의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새로 와서 이름을 몰라요” 하고 물었더니 상대가 “저는 CFO입니다” 했다고요.
- 시장조사 AI 기업 — 창업 2년 만에 기업가치 1조 원. **경영진 중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는 17 · 20 · 21살.
- 22살 주립대 중퇴 창업자는 어릴 때 “**문제아**”로 불렸어요. 수업 시간에 게임만 했거든요. 지금은 AI 학습 데이터를 사고파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 피터 틸의 **틸 펠로우십**은 2011년부터 대학을 안 가거나 중퇴한 창업가에게 투자합니다. 지금까지 **300명 이상** 배출.

“학벌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학위라는 여과 장치**, 이름값 하나로 사람을 걸러 왔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별로 보지 않고요.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 **오해하지 마세요.** “대학 가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위 말고도 증명할 길이 여러 개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길이 하나뿐일 때 우리는 불안하지만, 길이 여러 개면 조금 덜 불안해집니다.

그럼 무엇으로 증명하나

다큐에 나온 사람들이 학위 대신 내민 것은 전부 “**내가 실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15살 야오스치	직접 설계한 드론과 세계 최고속 기록 . 학교가 연구실을 내줬습니다.
18살 펠로우	실제 문제를 푸는 능력. 브라운대 합격증은 서랍에 두고 왔어요.
로지의 주인	의사 면허가 아니라 DNA 분석 결과와 백신 하나 .
로보틱스 아이들	“금속을 만져본 손.” 회사가 가장 먼저 본 게 이거였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예요. **전부 시험이 아니라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실패가 허락된 시간**에서만 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안 바뀔까

수능 설계자가 말하다

26:00

1993년 학력고사를 없애고 주입식에서 벗어나려 도입한 수능. 올해로 **30년**. 그 설계자 본인의 평가입니다.

“수능은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래 의도의 수능도 아니고, 탐구를 묻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형태**가 됐어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습니다.**”

— 수능 설계자

대치동 키드 유나

28:00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엄마 아빠는 늘 나에게 학원을 보내는 존재.”

— 엄마: “쉬는 날이 없죠. **아이가 아프면 안 돼요.** 그러면 학원비가 날아가니까.”

— 대학에 가서: “AI가 인간을 대체할 거라는 시기인데, 나는 **교수님이 30~40년 전에 공부하시던 걸 배우고 있네.**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었어요.”

초4~5학년 때 학원 안 갔다고 매일 전화가 왔던 아이. 재수까지 해서 간 대학의 강의는 기대와 달랐고, 유나는 결국 **수능 점수로 뽑지 않고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배우는 대학**을 택했습니다.

20세기 DNA

30:00

“모든 사람이 20세기에 교육받았고, 사회 전체가 20세기에 만들어진 틀 안에 살고 있어서 **20세기 DNA를 아직 못 버린 겁니다.** 양반 사회에선 과거 시험 붙는 게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재수 삼수 평생을 해서라도. 그걸 쉽게 못 버리죠.”

“기존의 틀을 말없이 따라가지 않는 애들을 우리는 ‘문제야’라고 낙인찍는데 —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럼 이 틀은 문제가 없는 거야?**”

— 염재호 총장

“아이들이 **학교 숙제는 안 해도 학원 숙제는 칼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면 녹초가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뭘 근본적으로 좋아했는지 찾아보고 탐구해 볼 시간과 여유가 없는 거죠.”

“**어른의 사정을 아이들의 미래와 바꿔선 안 됩니다.**”

다큐가 짚은 사실 하나. 아이들의 다양성은 **초등학교까지만** 유효합니다. 중학교부터 이미 입시의 그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밖에서 보면

37:00

“미중 격차는 매우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은 때때로 조금 좁고, 사람들을 획일성으로 밀어붙입니다.** 이건 **생태계 경쟁**이고, 더 강한 생태계를 가진 사회가 성공합니다.”

“많은 교육 시스템이 시험해 온 그 능력은, 아마 **시험해야 할 옳은 것이 아닐 겁니다.**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다시 물어야 해요.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 제이미 메츨, 미래학자

미국의 교실은

38:00

- 실리콘밸리 인근 공립고. 학생들이 로봇의 **몸체와 두뇌를 직접 설계**합니다.
- 1992년 작게 시작한 로보틱스 대회가 지금은 전 세계 **9만 명이** 참가하는 무대가 됐어요.

“대학에 온 학생 중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안 한 애들은 **금속을 만져본 적도, 부품을 조립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눈에 띈 건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졸업생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땐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문제 해결자, 좋은 소통가, 창의적이고, 열정과 동기**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 AI는 그들 편이 될 거예요.”

— 지도교사

마지막 장면

46:00

AI가 수능 수학 전 문항을 **2분** 만에 푼다. 그리고 다큐는 아이들에게 꿈을 묻습니다.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되는 것.”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것.”

“**장래희망이 여러 개예요.**”

“몇 개?” — “60개요.” — “아니, 100개!”

SUMMARY

세 나라를 한 장으로

두 편을 다 보고 나면 결국 이 표 하나로 정리됩니다.

	중국	미국	한국
인재의 정의	국가 과제를 푸는 공학자	실제로 뭘 만들어낸 사람	시험을 잘 본 사람
누가 뽑나	국가가 골라 키움	기업이 직접 (학위 무관)	대학이 점수로 줄 세움
실패하면	“또 5만 위안 주지 뭐”	중퇴가 이력이 됨	재수 · 삼수
교육 방식	현장 먼저 → 교실 (역순)	만들면서 배움 (로보틱스)	교실에서 끝
강점	속도 · 스케일 · 공급망	다양성 · 자본 · 실력주의	근면 · 기초학력 · 제조 저력
그늘	사회적 논의가 차단됨	격차가 벌어짐	획일성 · 20세기 DNA



이 표를 볼 때 주의할 것. 다큐는 “중국처럼 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 편에서 가장 강조한 그늘이 **“목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차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가져올 건 **속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어른, 직접 만들어 보게 하는 교실. 중요한 건 나라를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어느 칸을 닮아가고 있는지** 알아채는 일이에요.

숫자로 기억하는 두 편

6 → 47	로봇 마라톤 완주 대수. 1년 만의 변화 입니다.
358 km/h	15살이 직접 만든 드론의 최고 속도. 세계 기록.
5만 위안	“실패해도 또 준다”는 그 지원금. 약 1,000만 원.
16,000시간	중국 정부가 모은 로봇 학습 데이터.
100%	의대에 중북 합격한 최상위권이 공대에서 빠져나가는 비율.
2분	AI가 수능 수학 전 문항을 푸는 데 걸린 시간.
100개	한 아이가 말한 장래희망의 개수. 다큐의 마지막 대사.

낯선 단어 미리보기

가볍게 훑고 가시면 영상이 훨씬 편해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피지컬 AI	화면 속이 아니라 몸을 가진 AI . 로봇 · 자율주행 · 드론이 여기 속해요.
휴머노이드	사람 모양 로봇. 팔다리가 있어서 사람이 쓰는 도구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저공경제	지상 1km 이하 하늘을 산업 공간으로 쓰는 것. 드론 배달 · 드론 택시.
표준	“이 방식으로 만듭시다”라는 세계 공통 규칙. 정하는 쪽이 판을 칩니다.
원사 제도	과학기술 최고 인재에게 국가 운영의 핵심 지위를 주는 중국 제도.
NPU / AI 반도체	AI 계산만 전담하는 칩.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로 불려요.
LLM	Chat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 글 읽고 쓰는 걸 사람보다 잘합니다.
언더독	이길 것 같지 않은 약자. “엔비디아도 20년 전엔 언더독이었다.”
펠로우십	학위 대신 실력으로 뽑아 키우는 프로그램. 팔란티어 · 틸 펠로우십이 그 예예요.
서전동송	서쪽 사막에서 전기 만들어 동쪽 산업 도시로 보내는 중국 국가 프로젝트.
계약학과	기업이 학비를 대고 졸업하면 그 회사에 가는 학과. 반도체 계약학과가 대표적.
알파폴드	(1회차 복습)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AI. 데미스 하사비스가 특허 없이 공개했죠.

💡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 중 **피지컬 AI**와 **표준** 두 개만 기억하고 가셔도 1부는 다 이해되고, **펠로우십** 하나만 기억하시면 2부가 쉬워집니다.

오늘 차를 따라가며 나눌 이야기

차 네 잔의 흐름을 따라 대화도 깊어집니다. **향기 → 탐색 → 확장 → 회고**

1 첫 잔 · 향기 마음이 먼저

- 두 편 중 **가장 오래 남은 장면 하나**만 꼽는다면?
- 의사 체험관 장면, 솔직히 어떠셨어요? 불편했나요, 공감됐나요?
- 15살 야오스치와 대치동 유나 — **우리 아이는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2 둘째 잔 · 탐색 머리로 들어가서

- 중국은 “먼저 만들고 고친다”, 우리는 “규제 만들고 시작한다”. **어느 쪽 아이가 더 행복할까요?**
- 현직 의사가 “내가 가장 먼저 대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의대를 권할까요?**
- “20세기 DNA를 못 버렸다” — **내 안의 20세기 DNA는 뭘까요?**

3 셋째 잔 · 확장 우리 집으로

- 우리 아이가 **“5만 위안 실패”**를 해볼 기회가 지금 있나요? 없다면 **뭘 없애야** 만들어질까요?
- 로보틱스 아이들의 세 가지 — **문제 해결자 · 소통가 · 창의성**. 우리 집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건?
- 로지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었지만 답을 찾았어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 학교 숙제보다 학원 숙제를 먼저 하는 구조 — **우리 집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이 것인가요?**

4 넷째 잔 · 회고 나에게로

- 다큐는 나라 이야기지만, 결국 **각자의 인재전쟁**입니다. 나는 지금 뭘 배우고 있나요?
- 아이한테 “이거 해” 대신 **내가 먼저 해볼 수 있는 것 하나**는?
- 오늘 집에 가서 **아이에게 던질 질문 한 문장**을 정한다면?

아이랑 나눌 이야기

같이 드리는 『아이용 그림책』 PDF를 함께 보면서요. 집에 가서, 밥 먹다가, 자기 전에.

- **“장래희망 몇 개야?”**
하나로 좁히지 말고 몇 개인지만 세어 보세요. 100개여도 좋아요.
- **“로봇이 사람이랑 같이 마라톤 뛰었대. 누가 이겼을까?”**
승패 말고 **“로봇은 어떻게 달리는 법을 배웠을까?”**로 흘러가면 성공이에요.
- **“15살 형이 만든 드론이 시속 358km래.”**
→ “너는 뭘 만들어 보고 싶어?”
- **“실패해도 또 돈 주는 학교가 있대.”**
→ “네가 마음껏 실패해 봐도 되는 건 뭐야?”
- **“AI가 수학 문제를 2분 만에 다 풀었대.”**
→ “그럼 사람은 뭘 하면 좋을까?” (아이 대답이 어른보다 나올 때가 많아요)

💡 **정답을 알려주지 마세요.** 이번 다큐의 결론도 “아직 아무도 정답을 모른다”였어요. 아이가 말할 때 그냥 들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큐가 말한 미래 인재의 조건 세 가지

문제 해결자	답을 외운 사람이 아니라, 답이 없는 상황을 견디며 풀어보는 사람.
소통가	혼자 똑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창의성	열정 · 동기 · 좋은 아이디어. AI가 아직 못 하는 딱 그 지점.

이 세 가지 중에 **시험 점수는 없었습니다.**

TAKEAWAY

**“엄마가 ‘재밋네!’ 하면 아이도 따라오고,
엄마가 두려워하면 아이도 도망칩니다.”**

세상이 빨라지는 걸 우리가 못 늦춥니다.

대신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 법**을 같이 연습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알아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모입니다.**

그게 이 찾자리가 하는 일입니다. 영차. 🍲

다음 자리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2026년 9월 16일 (수) 오전 10:30 · 을지로3가

문의 · 알림 : Instagram @kidsrunning_lab DM

본 자료는 참석자 학습용입니다. 외부 공유 · 재배포를 삼가 주세요.

© 2026 Kids Running Lab